

# 치위생 전공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이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김다희

단국대학교 보건복지대학 치위생학과

## The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Subjective happiness and Academic Resilience Dental Hygiene Student

Da-Hui Kim

Lecture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chool of Health Science, Dankook University

**요약** 치위생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이 학업 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치위생 전공 학생 지도 및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였다.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대전·충남 지역의 치위생 전공 학생을 임의추출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총 175명을 최종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업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관적 행복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이었고, 그 중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관적 행복감이었으며, 설명력은 25.6%였다. 치위생 전공 학생 지도 및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요인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생활 적응에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학업 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치위생 전공, 주관적 행복감, 대학 생활적응

**Abstract** In this study, we surveyed the students enrolled in the dental hygiene program to identify how academic self-efficacy and subjective happiness affect academic resilience and, therefore, to help in guidance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for dental hygiene students. We conducted the self-administered survey by randomized inclus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from Daejeon and South Chungcheong Province. A total of 175 students were finally analyzed. The study result showed that subjective happiness and academic self-efficacy were the factors that affected academic resilience and explanatory power accounting for 25.6%. This study has provided a foundational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enhance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by providing guidance for dental hygiene students and suggesting factors related to adaptation to college life.

**Key Words** : Academic resilience, Academic self-efficacy, Dental hygiene, Subjective happiness, Campus life satisfaction

### 1. 서론

청소년은 대학에 입학한 후 청소년기와는 다른 스트레스, 다양한 가치관의 수용 등의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면서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여 대학생활 적

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1]. 특히 대학입시 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업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엄청난 스트레스에 당면해 있으나 가정, 학교, 사회에서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기보다 이러한 문제를

\*Corresponding Author : Da-Hui Kim(plusoten@naver.com)

대학입학 후에 해결되리라 생각하며 방치하는 실정이다[2].

대학의 역할 중 하나는 학생들이 선택한 전공에 잘 적응하여 발전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학습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학생들을 관찰하고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해야 한다[3]. 특히 치위생 전공 학생의 경우 치위생학 학문의 특수성,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임상 및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직업과의 연계성이 높다. 또한 학업적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학업 부진, 전공에 대한 자신감 하락으로 인해 전공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며, 학업을 중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대학생활 적응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3,4].

주관적 행복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총체적인 감정으로 개인의 지각된 행복감을 말하며, 이러한 행복감은 주관적 안녕감과 유사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5]. 20대가 경험하는 행복감은 개인적 차원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며, 사회에서 긍정적이고 활기차며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서 중요하다[6]. 이러한 행복은 학습으로 인해 변화 가능한 중요한 내적 요인이며, 자율성과 역량의 영역에서 성취와도 관련이 있다[7,8].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학습 과제를 학습자의 지각된 신념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어려운 일에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주어진 과제를 지속하게 되고,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게 된다[9].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으며, 동기조절을 잘하게 되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학업 외 사회적, 일반적 적응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10]. 치위생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민과 이[4]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학업탄력성은 학업적 위기나 스트레스에도 가족과 동료와의 관계 및 학업적 환경 등의 지지체계를 인식하며 스스로의 학업적 성취와 발전을 위해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11]. 이는 학업현장에서 낮은 성취, 실패 상황, 과도한 스트레스에서도 극복을 위해 긍정적으로 적응해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내는

상위 인지적 특성을 의미한다[12].

일상에서 학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학생들에게는 학업탄력성이 중요하고 필요한 탄력성이라고 볼 수 있다[8]. 학업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은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높은 학업 성취도를 유지한다. 또한 학교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대인 관계에서도 원만하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특성을 보였다[13].

치위생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민과 이[4]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김과 이[14]는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학업탄력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학업탄력성과 주관적 행복감[12],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존중감[15], 학업적 자기효능감[16]과 관련된 연구는 있었으나 학업적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 학업탄력성에 관련된 연구는 미비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 전공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이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치위생 전공 학생 지도 및 대학 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대전·충청지역에 위치한 치위생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임의추출하여 2020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총 4개월간 진행하였다. 연구의 목적, 익명성 보장 및 연구 목적에만 사용하며, 중단 및 거부 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 후 최종 동의한 대상자만을 조사하였다. 표본 크기는 G\*power 3.1.9.4를 사용하여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효과 크기 0.15, 예측변수(학업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 일반적인 특성)을 8개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 크기 160명이었으며, 탈락자를 고려하여 181명 대상으로 하였고, 175명을 최종분석하였다.

### 2.2 연구 도구

연구 도구는 일반적 특성 5문항, 학업적 자기효능감 28문항, 주관적 행복감 4문항, 학업탄력성 2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학제, 학년, 학과 지원동기, 학과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Bandura[17]의 이론을 바탕으로 김과 박[18]이 개발 및 타당 화한 도구를, 주관적 행

복감은 Lyubomirsky와 Lepper[19]가 개발한 주관적 행복감 척도를 김[20]이 번안한 도구를, 학업 탄력성은 김[21]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탄력성은 5점 Likert 척도를 주관적 행복감은 7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 학업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0.797, 주관적 행복감 0.865, 학업 탄력성 0.842로 나타났다.

### 2.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 분석하였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 학업 탄력성은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 학업탄력성은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ANOVA 분석 후 사후분석은 Duncan으로 분석하였다. 요인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s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학업적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 학업 탄력성 정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 학업탄력성 정도는 Table 1과 같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5점 기준으로 3.44점, 주관적 행복감은 7점 기준으로 4.79점, 학업탄력성은 5점 기준으로 3.76점으로 나타났다.

### 3.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 학업탄력성의 차이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 학업탄력성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제( $p=0.001$ ), 학년( $p=0.017$ ), 학과만족도( $p=0.017$ ), 대학 생활 만족도( $p=0.019$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제는 '4년제', 학년은 '1학년', '4학년' 학과만족도는 '만족한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만족한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감은 학과만족도( $p<0.001$ ), 대학 생활만족도( $p<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과만족도와 대학 생활만족도에서 '만족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업탄력성은 학과만족도( $p<0.001$ ), 대학 생활만족도( $p=0.003$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과만족도와 대학 생활만족도는 '만족한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3.3 치위생 전공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이 학업탄력성의 상관관계

치위생 전공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 학업탄력성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행복감( $r=0.383$ ), 학업탄력성( $r=0.333$ )은 양의 상관관계가, 주관적 행복감과 학업 탄력성( $r=0.497$ )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 3.4 치위생 전공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이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요인

치위생 전공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이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요인은 Table 4와 같다. 학업탄력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일반적인 특성은 더미 변수로 전환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치위생 전공 학생의 학업 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준 독립변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t=2.027, p=0.044$ ), 주관적 행복감( $t=4.918, p<0.001$ )이 학업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Durbin-Watson 검정계수는 2.082으로 자기 상관성의 문제가 없었고, 공차한계는 1.0이하로 유의한 무형이었으며( $F=5.606, p<0.001$ ), VIF는 10을 넘지 않아 문제가 없었다. 치위생 전공 학생의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 행복( $\beta=0.374$ ), 학업적 자기효능감( $\beta=0.156$ ) 순이었고, 가장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관적 행복이었으며, 설명력은 25.6%이었다.

Table 1. Reliability of instrument scales

Variables	N	Mean	SD	Cronbach's $\alpha$
Academic self-efficacy	175	3.44	0.56	0.797
Subjective happiness	175	4.79	1.14	0.865
Academic resilience	175	3.76	0.44	0.842

Table 2. Level of sca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 Mean±SD

Division		N	Academic self-efficacy	t or F (p)	Subjective happiness	t or F (p)	Academic resilience	t or F (p)
School system	3-year	65	3.24±0.62	-3.575	4.87±1.20	0.711	3.76±0.44	-0.114
	4-year	110	3.56±0.49	(0.001)	4.74±1.11	(0.478)	3.77±0.44	(0.910)
Year	1	30	3.57±0.53 <sup>b</sup>	3.471	4.90±0.87	0.247	3.87±0.31	0.977
	2	36	3.39±0.71 <sup>ab</sup>	(0.017)	4.83±1.32	(0.906)	3.73±0.58	(0.405)
	3	55	3.27±0.53 <sup>a</sup>		4.72±1.12		3.71±0.44	
	4	54	3.57±0.45 <sup>b</sup>		4.76±1.19		3.78±.38	
Motive of major selection	One's own mind	86	3.43±0.56	0.310	4.85±1.13	0.576	3.78±0.43	1.336
	Suggestion of others	32	3.40±0.56	(0.818)	4.66±1.08	(0.631)	3.72±0.46	(0.264)
	Score	48	3.50±0.56		4.83±1.21		3.82±0.42	
	Etc	9	3.38±0.70		4.41±1.15		3.52±0.49	
satisfaction in major	Satisfaction	62	3.58±0.53 <sup>b</sup>	4.155	5.20±1.16 <sup>c</sup>	8.903	3.89±0.45 <sup>b</sup>	5.267
	Average	98	3.39±0.57 <sup>ab</sup>	(0.017)	4.64±0.98 <sup>b</sup>	((0.001)	3.72±0.50 <sup>ab</sup>	((0.001)
	Dissatisfaction	15	3.12±0.50 <sup>a</sup>		4.02±1.50 <sup>a</sup>		3.54±0.47 <sup>a</sup>	
Campus life satisfaction	Satisfaction	55	3.52±0.63 <sup>b</sup>	4.079	5.26±1.12 <sup>b</sup>	8.667	3.90±0.50 <sup>b</sup>	5.986
	Average	96	3.47±0.50 <sup>b</sup>	(0.019)	4.65±1.04 <sup>a</sup>	((0.001)	3.74±0.39 <sup>b</sup>	(0.003)
	Dissatisfaction	24	3.15±0.58 <sup>a</sup>		4.79±1.14 <sup>a</sup>		3.55±0.39 <sup>a</sup>	

\* by t-test or one-way ANOVA

<sup>a,b,c</sup> Same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indifferent by Duncan multiple comparison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

Variable	Academic self-efficacy	Subjective happiness	Academic resilience
Academic self-efficacy	1		
Subjective happiness	0.383**	1	
Academic resilience	0.333**	0.497**	1

\*\*p<0.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Academic resilience

Variables	B	SE	$\beta$	t	p*	Tolerance	VIF
(constants)	2.853	0.229		12.486	0.000		
School system_dom	-0.129	0.092	-0.143	-1.397	0.164	0.407	2.457
Year_dom1	-0.227	0.115	-0.210	-1.970	0.051	0.374	2.670
Year_dom2	-0.213	0.114	-0.227	-1.869	0.064	0.290	3.450
Year_dom3	-0.099	0.094	-0.105	-1.055	0.293	0.433	2.308
Motive of major selection_dom1	-0.014	0.084	-0.012	-0.162	0.871	0.779	1.284
Motive of major selection_dom2	0.076	0.073	0.078	1.044	0.298	0.764	1.309
Motive of major selection_dom3	-0.138	0.138	-0.070	-0.996	0.321	0.869	1.151
satisfaction in major_dom1	0.028	0.074	0.031	0.381	0.704	0.647	1.546
satisfaction in major_dom2	0.011	0.122	0.007	0.090	0.928	0.701	1.426
Campus life satisfaction_dom1	0.072	0.076	0.077	0.955	0.341	0.657	1.522
Campus life satisfaction_dom2	-0.085	0.099	-0.067	-0.860	0.391	0.697	1.434
Academic self-efficacy	0.122	0.060	0.156	2.027	0.044	0.719	1.390
Subjective happiness	0.143	0.029	0.374	4.918	0.000	0.740	1.352

R=0.312, Adjusted R<sup>2</sup>=0.256, F = 5.606(p<0.001), Durbin-Watson: 2.082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alpha=0.05$

#### 4. 고찰 및 결론

대학은 학생들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지식 전수와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여 학생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졸업 후 전공에 따른 직업 연계성이 높은 치위생학과 같은 경우는 대학 생활 부적응으로 인해 학업 부진이 일어나는 경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담감과 그로 인한 학업중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도를 높이고 대학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3.44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16]의 연구의 3.1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제( $p=0.001$ )는 '4년제'에서, 학년( $p=0.017$ )은 '1학년'과 '4학년'에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양[22]은 학년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자마다 다른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1학년과 4학년에서 높게 나타난 결과는 1학년은 전공 선택에 대한 호기심과 동기유발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고, 4학년은 졸업을 앞두고 국가시험 및 취업에 대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따라서 1학년 때부터 학습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학과 교수들의 학습상담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학과만족도( $p=0.017$ )는 '만족한다'에서 높게 나타났고, 치위생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민과 이[4]의 연구에서도 학과만족도의 '만족한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마와 이[23]의 연구에서는 학과만족도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 생활만족도( $p=0.019$ )는 '만족한다'가 높게 나타났고, 김과 박[24]의 연구에서도 대학 생활만족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생들의 불안을 낮추고 보다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사용하도록 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필요한 요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킨다는 김과 황[25]의 연구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주관적 행복감은 4.79점으로 여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26]의 4.81점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감은 학과만족도( $p<0.001$ )에서 '만족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김과 전[6]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대학 생활만족도( $p<0.001$ )에서는 '만족한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긍정적 정서[27]이고, 긍정적인 사고가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28]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인다면 학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주관적 행복감과 대학생활 만족에 관한 연구는 찾을 수가 없어 추후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탄력성은 3.76점으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정과 이[29]의 3.72점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과만족도( $p<0.001$ )에서는 '만족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 등[14]의 연구에서도 전공 만족도가 차이가 나타났으며, '만족한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과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치위생 전공 학생들이 전공과목을 대할 때 긍정적으로 적응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대학 생활만족도( $p=0.003$ )에서는 '만족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강[29]의 연구에서도 대학 생활만족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매우 높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과만족도 및 대학 생활만족도가 높은 경우 스스로의 위기 극복능력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치위생 전공 학생의 학업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 행복감( $\beta=0.374$ ), 학업적 자기효능감( $\beta=0.156$ ) 순이었고,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관적 행복이었으며, 설명력은 25.6%이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과 황[25]의 연구에 따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와 권[30]의 연구에서도 행복감이 학업 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업 탄력성이 주관적 행복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학업탄력성을 높이기 위해-대학 차원의 지원과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치위생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확대와 학업 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인들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치위생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탄력성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를 규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치위생 전공 학생이 대학생활 적응과 대학 및 학과의 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한 기초자료가 되었다고 사료 된다.

## REFERENCES

- [1] S. H. Lee & S. J. Kim. (2012). The degree of perceived stress, depression and self esteem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3), 453-64. DOI : 10.5932/JKPHN.2012.26.3.453
- [2] K. S. Jeon & T. Y. Jung. (2009). Happiness determinants for korean adolescent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5(1), 133-53.
- [3] Y. O. Nam & M. H. Choi. (2015).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intelligences, academic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with major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5(4), 623-29. DOI : 10.13065/jksdh.2015.15.04.623
- [4] H. H. Min & H.J. Lee. (2020). Influence factors of positive thinking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school adjustment of freshma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4), 124-32. DOI : 10.22156/CS4SMB.2020.10.04.124
- [5] S. H. Lee, Y. B. Chung & S. H. Kim. (2015). Influence on subjective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9(1), 115-26. DOI : 10.5932/JKPHN.2015.29.1.115
- [6] J. H. Kim & H. O. Jeon. (2016).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students : focused on psycho-social factors.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5(2), 123-32. DOI : 10.5932/JKPHN.2015.29.1.115 DOI : 10.5392/JKCA.2012.12.10.365
- [7] A. R. Shin & S.A. Lim. (2017). The study on the happiness index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7(5), 931-42. DOI : 10.13065/jksdh.2017.17.05.931
- [8] J. H. Kwon & Y. J. Lee. (2017). The effects of active coping strategy on subjective happiness in college student : Mediated effect of academic resilienc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12), 104-16. DOI : 10.5392/JKCA.2017.17.12.104
- [9] S. J. Han (2013).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5(5), 559-66. DOI : 10.7475/kjan.2013.25.5.559
- [10] J. H. Kwon & K. H. Kim. (2013). The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on schoo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 : focusing the mediated effect of self-reregulated learning. *Forum For Youth Culture*, (35), 31-57.
- [11] H. K. Oh & S. H. Kim.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youth academic resilience Scale.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9(1), 47-63. DOI : 10.16983/kjisp.2012.9.1.47
- [12] G. Y. Lee. (2016). Levels of self leadership among nursing student in metropolitan.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2(6), 233-253.
- [13] L. P. Hernandez. (1993). *The role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 [14] Y.S. Kim & J. H. Lee. (2019). The study on the convergence relationship of emotional intelligence, learning flow and academic resili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10), 51-58. DOI : 10.15207/JKCS.2019.10.10.051
- [15] Y. C. Kwon, C. Y. Jeong & Y. S. Seo. (2018). Validation of a path model for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 197-206. DOI : 10.14400/JDC.2018.16.1.197
- [16] M. S. Ko. (2019).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nursing student's happiness. *Health Communication, the Offici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14(2), 58-92. DOI : 10.15715/kjhcom.2019.14.2.85
- [17] A. Bandur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 SAGE
- [18] A. Y. Kim & I. Y. Park. (2001).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9(1), 59-123

[19] S. Lyubomirsky & H. S. Lepper.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2), 137-155.

[20] I. J. Kim. (2006). *Positive Psychology*. Seoul : Moolpure

[21] N. R. Kim. (2008).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ity of the scale of academic resilience*.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22] Y. M. Yang. (2019). The effect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on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undergraduate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3(4), 71-93.  
DOI : 10.15751/COFIS.2017.13.4.71

[23] R. W. Ma & E. J. Lee. (2017). Factors affecting academic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10), 521-31.  
DOI : 10.35873/ajmahs.2017.7.10.048

[24] H. H. Park & S. Y. Kim. (2016).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resili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0(6), 369-378.  
DOI : 10.21184/jkeia.2016.12.10.6.369

[25] T. H. Kim & E. I. Hwang. (2019). The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and school adaptation by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6(2), 213-33.  
DOI : 10.21509/KJYS.2019.02.26.2.213

[26] H. S. Park. (2014). Stress, yangsaeng and subjective happiness among female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4), 471-481.  
DOI : 10.5977/jkasne.2014.20.4.471

[27] H. J. Kim. (2009). *The influence of positive emotion, flow and meaning in life of university students' upon their happiness*. Master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28] S. O. Kim & S. M. Kim. (2016). Predictors of positive thinking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8(3), 1717-27.

[29] S. H. Jung & E. S. Lee. (2015). The relationships between adaptive perfectionism, academic resilience and self-regulated learning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8), 83-103

[30] K. W. Seo & J. K. Myoung. (2016). Factors affecting academic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6), 229-40.  
DOI : 10.35873/ajmahs.2016.6.6.022

김 다 희(Da-Hui Kim)

[정회원]



- 2014년 2월 : 건양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 석사)
- 2019년 2월 : 단국대학교 구강보건학(구강보건학 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보 건복지대학 치위생학과 외래교수

· 관심분야 : 예방치위생, 통계, 구강보건학

· E-Mail : plusoten@naver.com